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7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31일(음 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진짜 믿는다는 것은 탁팽개쳐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본래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어디 들머실 자리도 변변치 않고 해서, 항상 마음은 좌송하지만 어쩔니까? 예전에 부처님께서서는 나무 밑에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쩔니까!

우리 생명들이 사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물만생 중에 하(下)의 생명들은 모두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들거들 죽으면서 거들거들 또 살고, 또 살면서 거들거들 먹고 이렇게 삽니다. 사람 역시 한 철 살면서 아주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 한동안은 짧게 사는가 해도 곧 늙고 병들게 되죠.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다가 늙어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회향을 할 때가 되니까 산 게 너무도 허무하고...

사람의 마음들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회향하는 게 다르죠. 늙어서 회향을 할 때 아주 마음이 가볍게 해야지 무겁게 짊어진 채 회향을 한다면, 또 짊어지고 와서 이 세상을 한동안 또 살아야 하죠. 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중(中)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이 중세계에 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은 육(肉)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렇지, 이 몸속에 주인이 없으면 반드시 집을 그냥 뺏깁니다. 주인이 있으면 내 집을 그렇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지키는 내 주인이 없다면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는 꼭 뺏기고야 맙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인 없는 집과 주인 있는 집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주인 없는 집은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는 폐가가 되든, 자기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잘 다듬어 놓을 수도 없고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죠.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르고 누구나가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빈집이라면, 주장자가 없는 빈집이라면 거미도 치고, 온갖 무리들, 잡 생명들이 다 그 집을 헐어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을 발견해서 세워라, 이런 뜻이죠. 가끔 이렇게 보면 주인을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지니고 사는 사람 다른데, 주인 없는 사람은 죄 여여하



그림 · 최추현

질 못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주인이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첫째, 마음이 편안하고 풍족하지요. 그래서 애김데,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해드리지만 그걸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육체를 돌아보는 바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봉이 꽃피지 않았으면 그 바뀌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봉이 있으니까 돌아가죠. 본래 심봉은 있다. 그런데 바뀌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심봉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본래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라던 얘기죠.

하루 동안 흘러가는 생활도 참나참나 화(化)해서 나투면서 힘이 없이 여여하게 이렇게 돌아가건만, 여러분의 생각이 미진해서 여여하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참나참나 화한다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참나참나 화한다는 건 변한다

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항상 얘기 하지만, 보는 것도 저것 보면 이것 보게 되고, 이것 보면 저것 보게 되고 하는 게, 그게 화하는 도리입니다. 그게 변화가 있는 도리입니다. 이걸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여길 가면 저길 가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 대중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먹고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 다 하더라도 먹었으면 벌써 그건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양 먹었느냐?" 하면 "식기 뒤었습니다." 이래야 말대답이 되죠. 벌써 먹은 거는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말입니다. "밥 먹었습니다." 이러면 벌써 되풀이하는 얘기가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 즐거운 게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즐거운 거는 쥐뿔만하고 괴로운 거는 태산 같은데 뭘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그러셨습니다. "너

희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태산 같은 짐을 짊어졌으니 어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짐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느냐는 것을 항상 얘기 해 드리오. 참나참나, 이것 보면 다른 거 봐야 하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집착하지 말라고요. 돌아간 건 이미 돌아갔으니 집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형제들 또는 친척간에 문제들이 생기면 항상 집착을 하게 되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관(觀)해 주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렇게 식구들한테 집착을 하면 외려 진짜 받아먹을 거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합니다.

'보이는 자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거니까요.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하면 못 알아듣는 이치가 있을까 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자기는 바로, 보이는 자기가 없더라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다 이겁니다.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와 같습니다. 참나참나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넉넉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광대하고도 묘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건 요소요소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보살들의 이름을 다 지어 놓는 겁니다.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움직여서는 몸뚱이만 있는 저 부처님은 움직여지지 않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외려 더 크죠. 부처님 몸은 우리 눈에는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부처님이다' 한다면 크고 커서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커서 이 우주를 두루 한다 이겁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를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발로 한 군데를 뛰어도 넉넉하게, 적다 많다 길다 짧다 하는 게 없이 한 걸음에 뛰시니까 말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과 같이 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나 중국 같은 데서 어떤 소식이 왔다 할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이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알았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벌써 여기서 한 걸음에 한 걸음을 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요 대문 바깥에 한 걸음이고, 우주를 벗어나도 한 걸음입니다. 미국을 뛰어도 한 걸음이고, 모두가 한 발로 한 걸음을 뛰는 겁니다.

우리 살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이나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들이 모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게 나올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내 어찌 환란을 안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주장자가 정신계를 다스리고, 정신계를 다스리니까 이 물질계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승과 이승을 정신계다 물질계다 한다면 한 발로 정신계를 밟고 한 발로 물질계를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으로는 한 참나참나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한반도의 중요 요충지이자 외세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했던 민족자존의 현장 남한산성!
그 안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조선의 8도를 하나로 모으고자 세웠던 팔도사찰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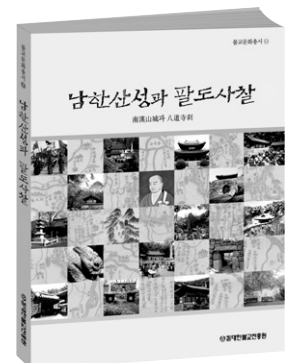
배불정책의 암울한 상황에도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앞세웠던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남한산성!



조선의 8도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민족의 힘을 총집결하고자 했던 승군장인 벽암 각성선사의 충절과 외적의 침입을 방어함과 동시에 왕권강화의 중요한 국가시설이었던 남한산성!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한이 서린 남한산성과 그 안의 팔도사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자.



[전보성 지음, 대한불교진흥원 권, 232쪽, 윗컬러, 값 20,000원]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